

전남 자영업자 1년새 1만7천명 줄었다

통계청 2015년 경제활동인구연보...광주·전남 57만6천명
전남 4.3% 줄고 광주는 '혁신도시 효과'에 1천명 늘어
16개 시·도중 11곳 폐업 증가...제주·서울만 창업 늘어

2014년 10월 무연에 음식점을 낸 정모(45)씨는 개업 1년도 안돼 식당을 접어야 했다. 남들보다 좀 큰 규모로 음식점을 내기는 했지만 이렇듯까지 장사가 안될지는 몰랐다. 개업초 잘되는가 싶더니 3달도 안돼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다. 직접 나서 주방을 보며 종업원까지 줄였지만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10여명의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었다.

전남에서만 자영업 종사자가 1만7000명이 줄어드는 등 지역 자영업자 수 감소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7일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전체 자영업 종사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57만6000명으로 전년(59만2000명) 대비 2.7%나 줄었다. 이는 전국 평균 2.2% 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남은 40만명에서 38만3000여명으로 4.3%나 감소했고 광주는 19만2000에서 1000명이 늘어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광주가 소폭 상승한 것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효과

과로 분석된다.

통상 통계청에서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구분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고용주, 자영업자 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자영업자에 포함한다.

이 같은 추세는 인력 과포화과 경기 부진 장기화로 음식점 등의 폐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광주 지역의 경우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한 것은 공공기관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부수효과로 인근 지역 식당과 유통업체가 활황을 보인 데다 관련업의 창업이 늘어난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유사했다. 특히 대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산과 인천, 대구 등 광역 대도시에서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3분의 2가량인 11개 시도에서는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5개 시도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았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제주 지역의 자영업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도 지난해 창업이 증가하면서 2015년 12월 기준 자영업자는 모두 112만3000명으로 전년(111만4000명)과 비교하면 9000명(0.8%) 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의 경우 기존에 도소매나 음식점 등이 이미 활성화돼 과포화 상태에 있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을 닫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1.63 (+25.79) ↓ 금리 (국고채 3년) 1.41% (-0.02)
- ↑ 코스닥 704.77 (+3.34) ↓ 환율 (USD) 1162.70원 (-20.90)

광주 생산 '기아 스포티지' 해외서 돌풍

14년만에 월간 판매 첫 5만대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가 지난 14년 만에 사상 첫 월간 해외 판매량 5만대를 넘어섰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형 스포티지는 수출 1만3823대, 해외생산 판매 2만8561대 등 해외 시장에서 총 4만2384대가 판매됐다. 중국 등에서 매년 구형 모델까지 합치면 총 5만2008대가 팔렸다.

스포츠지가 한달 동안 해외시장에서 5만대 이상 팔린 것은 1992년 스포티지 출시 이후 처음이다. 해외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이 팔렸던 2014년(42만5506대)의 월 평균 실적인 3만5400여대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다.

이같은 스포티지 돌풍은 4세대 신형 스포티지(프로젝트명 QJ)를 해외 시장에 본격 선보인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신형 스포티지가 출시되기 전까지 스포티지가 해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은 2013년 10월 2세대 스포티지(KM)와 3세대 스포티지(SL)의 판매실적을 합친 4만672대였다.

그러나 4세대 신형 스포티지 판매가

시작된 작년 12월 해외 시장에서 총 4만 132대가 팔려 1년여만에 다시한번 4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월간 판매 5만대를 돌파한 것이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돌풍을 앞세워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해외시장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시장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난해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4%나 감소했음에도 신형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슬로라키아 공장, 중국 공장 등 해외 생산 판매 실적 이 크게 향상돼 판매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형 스포티지는 정숙성, 힘, 경제성을 두루 갖춘 파워트레인에 초고장력 강판 확대 적용으로 안전성과 주행감성이 강화돼 이전 세대 모델보다 눈에 띄게 상품성이 개선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전자 기업용 복합기 美 바이어스랩 최고 등급

삼성전자의 프린팅 솔루션 플랫폼 스마트 UX 센터가 세계적인 사무기기 전문 평가기관 바이어스랩으로부터 최고 평가 등급 '플래티넘'을 받았다.

바이어스랩의 5개 평가 기준 중 사용자, IT 관리·보안, 고객 지원 서비스, 소장 가치 등 4개 부문에서 최고점을 획득했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들이 익숙하고 사용자 환경에 맞춰 레이아웃과 기능 설정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설치된 프린팅 앱 센터를 통해 앱과 위젯을 설치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으로 기존 복합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업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는 프린팅 에코시스템인 스마트 UX 센터는 문서나 사진을 복합기에서 직접 검토와 편집 등이 가능하며 출력·복사·스캔 등 기본 프린팅을 위한 앱과 위젯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바이어스랩의 분석 책임자 매들린 오어는 "복합기 사용자들의 문서 작업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우수한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전 수출상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수출촉진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벌이고 있다. (한전제공)

한전, 요르단·이집트서 수출 촉진회

스마트그리드·전력 저장장치 소개...739만달러 상담 실적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지난달 29일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에서 국내 전력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촉진회를 열어 739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2일까지 이어진 촉진회에는 해만테크, 국제전기 등 국내 전력분야 중소기업 9개사가 참가했다. 한전은 이번 수출촉진회에 요르단 및 이집트의 전력기관 관계자와 현지 바이어 총 200여명을 초청해 한전의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사업과 전력 저장장치(ESS)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한편,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 보유 기술

및 기자재를 홍보했다.

특히 한전은 중소기업들이 직접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자금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상담 비용 등을 모두 지원했다.

중소기업들은 촉진회 기간에 총 175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793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또 한전은 알함 파타 다라드카 요르단 전력공사 사장 등과 전력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전력산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농협손보·농축산식품부

농업수입보장보험 판매

NH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농협손보는 이날 공 작물을 대상으로 22일까지 가입을 받으며, 10월 마늘, 11월 포도·양파 등 품목에 대해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출시된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준다. 해당 지역농협이나 농협손보(1644-89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전남출신 농협중앙회 이사 3명·감사 1명 선출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7일 "농협중앙회 이사에 농협 삼향농협 나용석 조합장



나용석 이사 구희우 이사 강동준 이사 김재명 감사

과 영광축협 구희우 조합장, 전남농농협 강동준 조합장이 선출됐다"

발했다. 선출직 이사로 뽑힌 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4년 임기로 도내 농축협을 대표하게 된다. 또 동강농협 김재명 조합장은 3년 임기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이사는 선출직 18명과 사외이사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는데, 선출직 18명 중 3명이 전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용석 삼향농협조합장은 순수 농민으로 조합 최연소 이사로 선출돼 임원활

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2년 삼향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됐고, 구희우 영광축협 조합장은 전국축협 조사로 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농협사로 이사 및 감사위원, 농민신문사 대의원, 광주전남축협 조합장 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강동준 전남농농협 조합장은 종합업적평가 1위 3회, 축산육성대상, 총화상, 상조금육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김재명 동강농협 조합장은 4선으로 현재 전남·광주 농협 RPC (미국종합처리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여	남	여	남	여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72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67세
은행, 현대, LG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9~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7~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호텔 B10 6층 전주시 서산동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젊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면 방수시공 단열시공 시공후 시공전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량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